

Art & Technology #23: 토니 아워슬러

비디오아트의 새로운 방법론





미국 출신 비디오 아티스트 토니 아워슬러(Tony Oursler)는, 백남준 이후 비디오아트를 이끈 세대 중에서도 리더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1957년생인 그가 과학기술과 퍼포먼스, 오브제를 접목해 완성한 독특한 영상 작품은 여타 비디오아트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미술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형, 마네킹, 패널 등 테크놀로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오브제로 모니터를 대체하는 절묘한 조합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아워슬러는 비디오 매체로 촬영한 사실적 화면을 대상에 투사해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고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입체에 직접 영상을 쏘아 굴곡진 외형을 실감 나

아워슬러가 1970년대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탐구하고자 한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텔레그래프부터 시작해 개인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장치의 발전을 짚어보기도 하고,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20세기 텔레비전까지 미디어의 기원과 역사도 관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발달한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며 작품에서 인간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생태계 오염 등 환경문제와 신경증, 정신이상 등 심리적인 질병 등을 연구하고, 복잡한 인간 내면을 표현합니다.

게 드러내거나 종이와 비디오를 결합하는 등, 지금처럼 미디어와 신기술이 보급되기 이전 예술에서 영상예술의 새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그대로 흡수하다



1970년대 아워슬러는 주로 광고나 영화에서 금기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싱글 채널 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적나라한 심리묘사를 특징으로 작품에 직접 배우로 등장하며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디지털미디어가 이루어낸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인해 아워슬러의 영상작품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디어 설치와 비디오 조각에 손을 뻗친 그의 작품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서, 빔 프로젝터, 컴퓨터 편집기, 액정 스크린, LCD(Liquid Crystal Diode)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과정을 거쳤고, 앞서 언급했듯 오브제로 모니터를 대체하며 마치 인물이 실제로 화면에서 튀어나온 듯 보이는 생생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텔레비전이 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일종의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문, TV, 영화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인간에게 어떤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 지적하며, 인간이 텔레비전에 극도로 몰입해 결국 미디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일상을 잠식하고 마는 현상을 재치 있는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틀었습니다. 당시 대표작으로 1992년 카셀에서 열린 'Documenta IX'에서 소개한 <The Watching>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LCD 프로젝터를 이용해 처음으로 모니터 대신 인형을 사용한 아워슬러의 설치 작품입니다.

아워슬러 작품의 집약체, 최신작 <Imponderable>

한편 그는 무대 마술, 심령사진, 유사과학, 염력,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된 이페메라 (ephemera, 수명이 아주 짧거나 잠깐 쓰고 버리는 자료)를 모읍니다. 그는 이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어 아티스트, 뮤지션, 퍼포머 등 다방면에 걸친 앙상블들이 혼재된 장편영화를 제작합니다. 지난해 파리 루마 파운데이션에서 소개한 <Imponderable>(2015)가 바로 그 중 하나이며 사진, 자료, 출판물, 필름, 유니크한 오브제들을 모아 18세기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역사를 좇는 이 광범위한 리서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18일부터 뉴욕현대미술관 대규모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1862년 영국인 헨리 더크(Henry Dirck)가 연극무대를 위해 고안한 ‘페퍼의 유령 (Pepper’s Ghost)’-19세기 판타스마고리아 장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장치와 다양한 실감효과를 사용한 4D와 5D 시네마틱 환경 안에서 관람객은 작품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신비주의, 사이키델릭 아트, 대중문화, 미디어 역사 등 자신의 지속적인 관심사를 집약해 신념체계와 이미지의 진정성 사이의 비이성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지난 세기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전과 오컬트 현상의 교차점을 드러내기 위해 죽음을 연상시키는 섬뜩한 유머와 연극적이고 과장된 유머를 사용합니다. 그동안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다이나믹한 요소가 이 작품 안에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아트의 세대교체

앞서 아워슬러가 백남준 이후 비디오아트를 이끈 세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워슬러 이전 초기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예술 매체로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녹화한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투사하는 특성으로, 신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매체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상을 녹화해 모니터로 재생하는 기술 수준에 그치거나 TV의 대안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워슬러를 포함한 2세대 예술가는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등에 업고 시간, 공간, 매체, 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람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워슬러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조작된 이미지 등 여러 재료를 더한 독자적인 형식의 비디오아트로 대중적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 조각, 퍼포먼스라는 영역을 종합한 비디오아트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상 이미지와 설치 등 조각적 요소의 결합은 관람객을 다차원 환경으로 초대합니다. 아워슬러가 지닌 자신만의 독특한 미감은 발전을 거듭하는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아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작업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 with ARTINPOST





Tony Oursler. Imponderable. 2015-16. 5-D multimedia installation (color, sound). 90 mi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cquired in part through the generosity of Jill and Peter Kraus.

© 2016 Tony Oursler. Photo: Jonathan Muzikar. Digital image ©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Profile



Photograph by Ourslerstudio

토니 아워슬러(Tony Oursler)는 1957년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설치 예술가로 캘리포니아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습니다. 테이트모던, 암스테르담시립 미술관, 아로스 오르후스 쿤스트뮤지엄, 밀라노현대미술관, 휘트니미술관, 오르세미술관 등 각 나라 대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뉴욕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LA카운티미술관, 퐁피두센터 등 세계 유수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